

# 20조 추경·규제 완화로 경제 살리기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 홍보, 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내수 응급처방하고 기업활동 뒷받침 1인당 25만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소비부진 타개 모색

이재명 정부의 잠재성장률 3% 목표로 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선 기간 경제성장률에 대해 강조한 만큼, 정권 초기부터 강도높은 경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꾼 것부터 상징적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하게 쓸 것으로 보인다. 최소 20조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내수에 응급 처방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각종 제도적 혁신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통상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7월 세법개정안, 8월말 내년도 예산 등을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일정이지만, 6·3 조기대선에 이은 2차 추경 작업으로 시간표가 원점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갖 진용을 갖춘 대통령실 경제라인, 조만간 지명될 '경제사령탑'과의 조율을 거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성장 정책이 부각되는 것은 맞지

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조합을 가져갈지는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야만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여러 현안을 두루두루 정리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재정은 확장 기조다.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제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소비부진을 타개할 정책으로 상당액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의장은 관련 사업에 대해 "당연히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주요 아이টে็ม으로 꼽힌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슈별로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를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세수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런 증세 논의는 최소한 경기회복 이후로 미뤄두지 않겠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도.

이 때문에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 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국제 발행에 기대어 계속 확정재정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데다, 기본적으로 기업 혁신을 통해서만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역동성을 이끌겠다는 개념이다.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이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스펀더의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으로 발탁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15~17일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정상외교 '시동'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을 시작으로 정상외교에 시동을 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

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국의 모임이다. 한국은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2023년,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2021년 초청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가 초청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참석을 계기로 미국 방문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며 "대체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대통령실 신임 수석 프로필

#### 4선 의원 지낸 '86 운동권' 대표주자

##### 이상호 정무수석

이상호 전 의원은 '86 운동권' (1980년대 학번·1960년대대생) 그룹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4선 의원 출신의 중진 정치인으로, 19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부의장을 지냈다.

우 정무수석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우 정무수석은 3선 의원이었던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202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당내 86그룹 중 가장 먼저 총선 불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했다.

그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돼 당 수습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우 정무수석은 약속대로 2024년 총선에 불출마했고, 원외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로 했지만, 계파색은 옅다는 평이다.

이번 6·3 조기 대선 과정에서 고향인 강원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합지 공략'을 도왔다.

▲1962년생 강원 철원 ▲연세대 국문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17·19·20·21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 JTBC 기자 시절 탐사보도 분야서 '두각'

##### 이규연 홍보수석

이규연(63) 전 JTBC 고문은 언론계 출신으로 기자 시절 탐사보도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1988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주로 사회부와 탐사보도 분야에서 쌓았다. 2012~2015년에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다.

빈곤 아동의 실태를 조명한 기사로 2005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받았고, 농구선수 박승일의 루게릭병 투병 과정을 집중 조명

해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2015년에는 JTBC로 옮겨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진행했다.

JTBC 퇴사 이후에는 세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등으로 활동하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 합류했다.

▲1962년 서울 ▲서울대 농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 ▲고려대 문학박사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JTBC 보도 담당 대표

#### 검찰 '특수통' 출신... 李 대통령 연수원 동기

##### 오광수 민정수석

오광수(65)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교과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을 지냈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

자금 사건 등 굵직한 대형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이던 시절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과 외환은행 할값 매각 의혹,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교과 ▲성균관대 법학과 ▲서울서부지검 차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